

세기를 이어 메아리치는 승리의 총성

력사적인 보천보전투 승리기념일에 즐음하여

경제건설대전군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천만민의 힘껏 일컬을 소리가 강성을 친감하는 때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기념일을 맞이하였다.

흐르는 새월속에년대와 세기는 바뀌었어도 80여년전 삼천리강산을 뒤흔든 보천보의 총성은 오늘도 이 나라 천민민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메아리를 높이 울리고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보천보전투는 우리 혁명력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전투였습니다.》

역사의 뜻 잊을 추억의 갑피를 벗졌다.

이 나라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1930년대 중엽, 산천초목조차 비분에 떠는 조선은 하나님의 철없는 감옥으로 화하였다.

당시 일제는 조국의 민족의 독립운동을 완전히 말살해버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군대와 친명, 경찰당을 강화하는 한편 세상에 있는 것은 악법을 다 만들어내어 조선 사람들을 박차는데로 잡아가두었다.

또한 일제는 《내선일체》, 《동조동근》, 《황국신민회》를 떠들면서 조선 민족의 자주주의와 농을 충돌하게 짓고자 기 위해 조선사람이 자기 나머지는 물론 자기의 성과 이름까지 가질 수 없게 하였다.

일제의 의식에서 정 청 휘여 갑진 조선은 그야말로 암흑현저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빠진 청년장군께서는 조국의 북부땅에 울린 총성, 그것은 짓밟힌 거제의 가슴마다에 민족재생의 서광을 안겨주고 해방전의 불길을 지펴울린 원주민들의 희성이였다.

우리 인민이 일일천후로 갈망하던 거대한 사변을 일으오시기 위해 조국군의 길에 오르시던 민족의 영웅, 천세의 애국자의 지침한 자유자국이 송엄히 되새겨진다.

조국에로의 진군, 그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혈전의 길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적들이

악을 쓰며 강행한 1936년의 《동

기대도법》을 물리치기 위해 사설의 고비를 헤치며 수많은 전투를 치른

어야 했다.

몸의 끝에 귀천

투, 홍두산전투,

도천리전투, 러

명수전투...

백 두 광 야의

설 한 풍을 이겨

내며 언 풀 뿌리

조차 없어 눈으

로 창자를 달래

며 한치 한치를

피의 대 가로 뚫

아나가야 했던

무송원정의 나

넓은 또 얼마나

간고했던가.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역경속

에서도 드물지

않는 강철의 의

지와 불타는 조

국애, 혁명전

군에 대한 한 없

이 끄트운 믿음

과 사랑, 신축귀

물하는 유격전

법으로 조국전

군의 길을 열어

나가시었다.

이러한 때인

주제 26(1937)년 3월

말 무송현 서장

에서 조선인민

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전공작전과 관련한 각 부대들의

임무와 활동방향, 활동구역을 정해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전술적의도

에 따라 3개 방면에서 조선인민혁

명군 부대들의 맹렬한 활동이 개시

되었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 주

력부대가 지양개입에 대해

주진하고 있음을 통해 조선인민혁명군의 중

심지들중의 하나였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중요군사요충지였고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한눈에 바라보니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바라보았다.

보천보를 치운 적들은 국경경비 2선에

있는 조국산전이 한눈에

